LEADING
INVEST WITH LOVE

ECONOMY

LEADING RESEARCH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반전의 카드 ?

2018/09/17

Chief Economist
박상현
(2009-7355)
shpark@leading.co.kr

■ 지지율 급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측이 중단되었던 무역협상 재개를 제의하면서 일단 미중 무역갈등 리스크가 다시 주춤해짐. 물론 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 협상이 타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측 역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임.

다만, 미 의회 중간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락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함.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중국측에 협상 재개를 제의했다는 점이 주목됨.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지지율 회복을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무역갈등 타결도 지지율 만회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음.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제제로 인해 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음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지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 지지율 급락 현상이 나타났고 11월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만남이 G20 정상회담 등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미중 협상 결과를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음.

■ 가랑비에 옷 젖는 중국 경제

무역갈등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이미 직격탄을 맞았고 경기마저 무역갈등 리스크로 둔화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1~8월 중국 고정투자증가율은 전년동월 5.3%로 7월 5.5%에 비해 0.2%p 하락함. 또한, 지난해 중국 경기를 견인했던 IT 등 신경제 관련 산업생산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은 일정부문 미국과의 무역갈등 영향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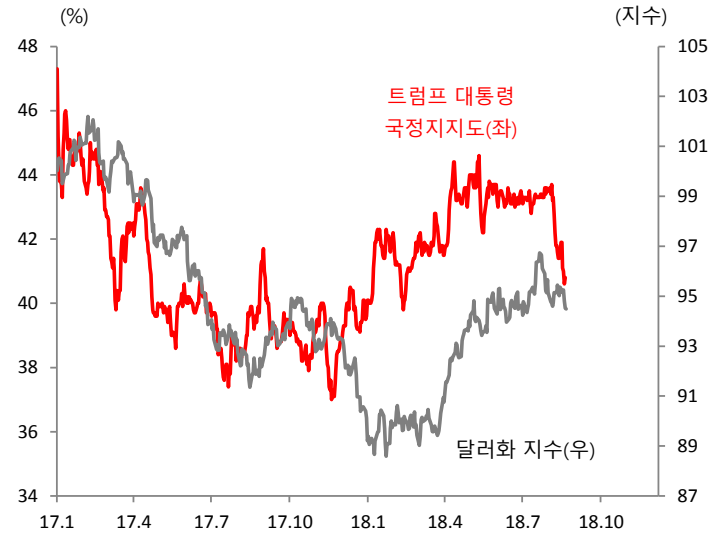
중국 주식시장과 위안화 가치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가 큰 몫을 차지하지만 중국 펀더멘탈 악화 역시 반영중임.

미국이 여전히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압력은 그나마 협상 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 다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지지율 급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측의 무역협상 재개를 제의하면서 일단 미중 무역갈등 리스크가 다시 주춤해졌다. 물론 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 협상이 타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측 역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중간선거를 50 여일 앞두고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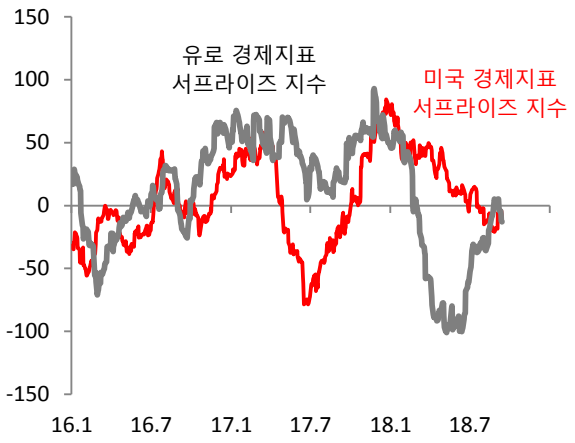
다만, 미 의회 중간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락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그 동안 44%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40%로 급락했다. 특히 11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6%로 전달에 비해 6%p 하락, 40%선마저 무너졌다. 동시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더해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이례적인 호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중국측에 협상 재개를 제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지지율 회복을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무역갈등 타결도 지지율 만회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0억달러의 추가 관세인상 발효를 앞두고 미국내 주요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음도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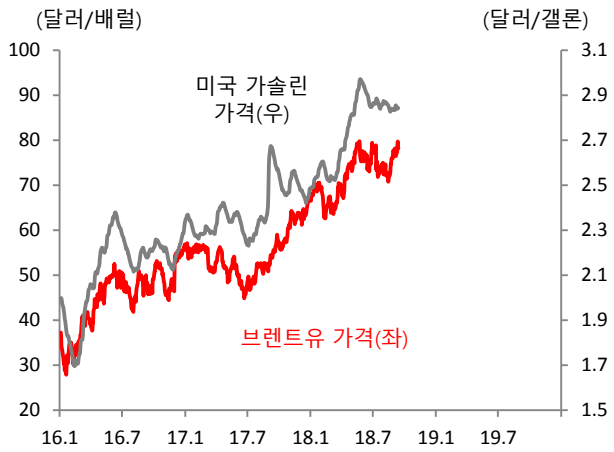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제제로 인해 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음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지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브렌트 유가는 배럴당 78달러로 8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가솔린가격은 갤론당 2.844달러로 아직 3달러를 하회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으로 가솔린 가격이 3달러를 돌파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상승이 이머징 경기에도 부정적 변수지만 미국 경제입장에서도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임은 분명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협상일 수 있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타결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 지지율 급락 현상이 나타났고 11월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만남이 G20 정상회담 등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미중 협상 결과를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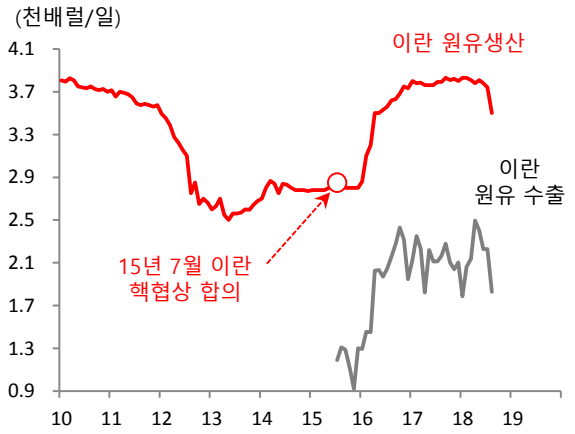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경제가 강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모멘텀은 다소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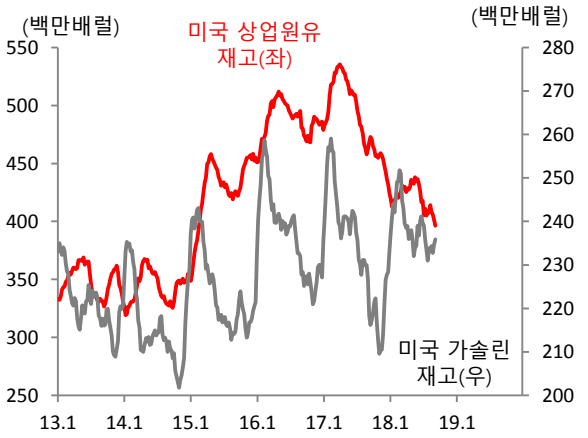
<그림 3> 이란문제, 미국내 낮은 원유재고 등으로 국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4>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 원유생산과 수출이 줄어드고 있음



<그림 5> 미국내 상업원유 재고 수준이 15 년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중임



자료: Bloomberg, EIA,,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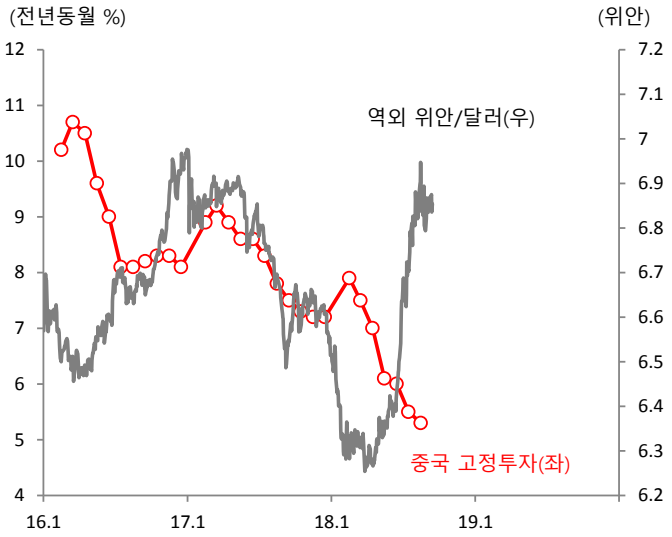
가랑비에 옷 젖는 중국 경제

무역갈등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이미 직격탄을 맞았고 경기마저 무역갈등 리스크로 둔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고정투자 증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월 중국 고정투자증가율은 전년동월 5.3%로 7월 5.5%에 비해 0.2%p 하락했다. 특히 1~8월 고정투자 증가율은 또 다시 통계작성(1995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물론 중국 고정투자 증가율의 하락세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의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7>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프라 투자의 급격한 둔화가 고정투자 부진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6> 중국경제, 대외적으로 무역갈등에 따른 환율불안, 대내적으로 고정투자의 가파른 둔화로 경기둔화 리스크가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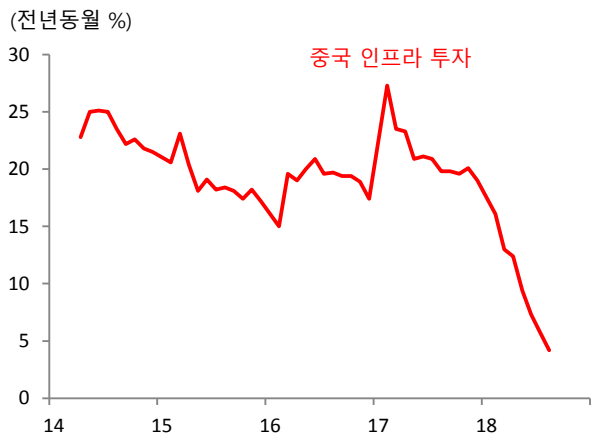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그러나, 지난해 중국 경기를 견인했던 IT 등 신경제 관련 산업생산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은 일정부문 미국과의 무역갈등 영향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아직 500억 달러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만 미국측이 관세인상 조치를 실행하고 있지만 2차, 3차로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인상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악영향이 중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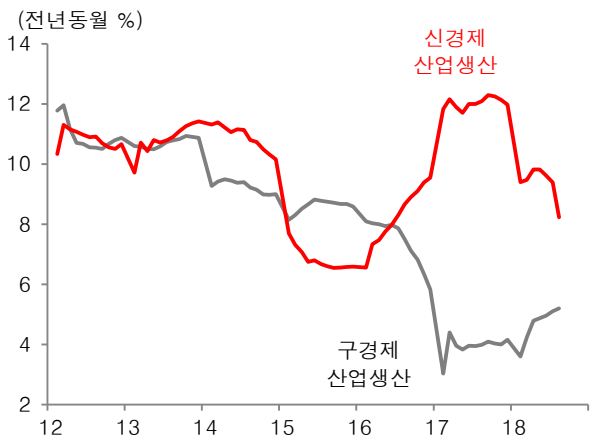
중국 주식시장과 위안화 가치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투자심리가 악화가 큰 몫을 차지하지만 중국 펀더멘탈 악화 역시 반영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멍들고 있는 경제와 금융시장을 하루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심각한 내상을 입을 공산을 높다.

결국 미국이 여전히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압력은 그나마 협상 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7>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프라 투자증가율이 가파르게 둔화중



<그림 8> 미국 무역갈등 여파로 신경제관련 산업생산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